2006년 중량물 포장업계 전망

한국중량물포장협회
부회장 김 형 빈

중량물 포장업계의 2005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수출이 신장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량물 포장업체의 포장 물량도 감소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덤핑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협회는 올해도 2004년에 이어 협회의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협회 창립 3주년이 되는 올 한 해를 협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매년 9월에는 포장설계 기술자 양성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목을 두 과목으로 늘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수원으로 이전하여 교육장을 마련하여 언제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도 신설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요 수출국 대부분이 목제포장재의 검역을 실시하게 되므로서 각국의 검역 규제 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필요하게 되어 한국무역협회 및 식물검역소와 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수출업체 및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한일 포장업계 교류회의 주제도 "각국의 목제포장재 규제 실태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일본하주협회 및 국립 식물검역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한일 추계 교류회>

그리고 업계에서 그 동안 요망해오던 "공업포장실무 수첩"을 발간하여 포장업계의 포장 실무자들이 항상 휴대하여 포장 설계 및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하게 수첩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장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자의 형태가 바깥틀상자인데 표준이 없기 때문에 설계자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고, 바이어로

<목제포장재 검역 설명회>

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협회의 단체 표준으로 제정, 보급하여 설계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은 앞으로 표준협회에 단체 표준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6년은 금년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될 전망입니다. 원화 절상, 유가 인상과 주변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우리 나라의 수출 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없으므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 신장이 어려울 전망이고 목제포장재의 규제 강화 및 유해물질 규제 지침의 실시 등으로 포장 원가 요인은 커지는데 오히려 발주업체로 부터의 가격 인하 압력은 커지고 있으며 물량 감소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덤핑 사례까지 발생하여 대부분의 포장 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 협회의 2006년 주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어려운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도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설계 실무자가 합리적인 포장 설계를 통한 원가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중간 관리자 양성 과정의 확대 실시 뿐만 아니라 초급자 양성 과정도 신설하여 생산 관리, 원가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의 과목까지 교육하여 회사 운영에 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관리자 양성 교육>

둘째,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실시한 공동구매 알선 사업을 확대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재원을 인력 양성, 각종 자료의 작성, 배포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포장의 합리화 및 간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의 간이화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며 아울러 용기의 재활용 및 회수가 용이하도록 공동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넷째, 업계의 실태 조사를 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중량물 포장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포장비의 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국제 교류 및 해외 조사단 파견을 통하여 각국의 목제포장재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업계에 신속히 전달하여 이로 인한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계획이 업계 모든 회원사들이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2006년을 오히려 중량물 포장업계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